

캄보디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6
IV. 국제신인도	8
V. 종합의견	10

I. 일반개황

면적	181천 Km ²	G D P	155억 달러 (2013년)
인구	1,540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1,009달러 (2013년)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통화단위	Riel(CR)
대외정책	친서방 외교중시	환율 (달러당)	4,027 (2013년 말)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인구는 크메르인(90%), 베트남인(5%)으로 구성됨. 공식 언어는 크메르어이나 과거 프랑스 식민지의 영향으로 일부에서는 불어를 사용함.
- 1864년에 태국과 베트남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프랑스 보호령 편입을 선택함. 1945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베트남군의 침공을 받았고 이에 따라 훈센 총리 등 친베트남 세력의 통치가 이어짐.
- 입헌군주국으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총리가 실질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음. 훈센 총리의 장기 집권에 따른 인권탄압과 부정부패로 반정부 시위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UN과 서방 국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 20세기 후반까지 지속된 내전 및 양민학살(킬링필드) 등의 영향으로 주변국에 비해 경제발전 수준이 낮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t
경제성장률	6.1	7.1	7.3	7.0	7.2
재정수지 / GDP	-2.9	-4.1	-3.8	-3.0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0	5.5	2.9	2.9	3.8

자료: IMF.

□ 대외여건개선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7.2%의 성장률 시현 전망

- 캄보디아의 주요 산업은 봉제 및 의류산업 등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과 농업 등임. 2012년에 미국에 대한 의류 및 신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가 30% 이상 증가하고 민간소비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3년에는 홍수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 지출 증가와 여행객 증가 등에 따라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2014년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경제여건 개선, 물류 및 발전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로 7.2%의 성장률을 시현할 전망이다.

□ 2012년 이후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

- 홍수 등의 자연 재해로 인한 수확량 변동과 국제 식료품 가격 등이 소비자물가의 주요 변수가 되고 있음.
- 2012년에는 국내 수확량 증가, 국제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로 안정됨. 2013년에는 홍수 및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불구하고 국제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2.9%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2014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경기활황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한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3.8%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적자는 감소 추세

- 캄보디아는 정부의 세수 기반 취약 및 국방비 지출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와 해외원조 유입 등으로 2011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폭이 감소 추세임.
- 2012년과 2013년에는 경기회복과 수출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가 각각 3.8%, 3.0%를 기록함.
- 2014년에도 국방비, 치안유지비 등으로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나 최대 수출 품목인 의류의 수출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 폭이 감소하여 GDP 대비 2.8%를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의류산업의 의존도가 높고 미국, 태국 등 일부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높음

- 봉제 및 의류산업이 캄보디아 상품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의류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또한, 2012년 기준으로 수출의 약 50%가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수입의 60% 이상이 태국, 베트남,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되거나 태국 및 중국으로부터의 상품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 주요 수출국(2012년): 미국(32.6%), 영국(8.3%), 독일(7.7%) 등
- * 주요 수출국(2012년): 태국(27%), 베트남(20.3%), 중국(19.4) 등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

- 전기, 철도 등 인프라가 크게 낙후되어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자가발전기를 사용하는 등 기업진출과 경제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도 국제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인프라 경쟁력은 조사 대상 148개국 중 86위로 낮은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전력공급(112위), 유선통신(110위), 철도(90위)가 취약함.

□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경제성장과 투자유치의 장애물

- 통관 및 행정 관련 부정부패가 심각하여 수출 및 투자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dex: TI)가 조사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캄보디아는 총 182개국 중 160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앙코르와트 등 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 캄보디아는 독특한 역사적 유물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시아 관광대국인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와의 인접하여 관광객 유치에 강점이 있음.
- 2012년에는 전년 대비 24.4% 증가한 3.6백만 명의 여행객을 유치하였으며 2013년에도 17.5% 증가한 4.2백만 명의 여행객을 유치함.
-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인근에 호텔, 리조트, 위락시설 등이 집중된 거대 관광 단지가 조성되고 있음.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 산업이 앙코르와트에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시아누크빌 중심의 해양관광 리조트 개발, 북동부 고원지대 환경관광 개발 등을 통한 관광 지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음.

□ 원유 매장 확인으로 원유 수출과 및 세수 확대 기대

- 2001년 시추작업을 시작한 합작 컨소시엄(셰브론 (Chevron), 미쓰이 (Mitsui), GS칼텍스)이 2005년 캄보디아 남부 타이만 지역 해상에서 상당량의 원유매장을 확인하였음.
- 원유 생산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석유 생산이 가시화될 경우 석유수출 및 세수 증가로 재정적자 해소가 기대됨.

다. 정책성과

□ 경제성장 정책 추진에 따른 빈곤 감축

-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성장, 고용창출, 사회구현, 정부 효율성 증대라는 4가지 정책 목표(Rectangular strategy)를 시행함에 따라 2011년에 빈곤율이 20.5%로 낮아짐.
- 하지만 부정부패, 인프라의 낙후, 열악한 노동여건, 도농간 격차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 4가지 정책 목표하에서 추가적인 정책 시행이 예상된다.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향후 봉제업 등의 경쟁력 약화 예상

- 캄보디아 정부는 의류 근로자들의 시위 등에 따라 2013년 12월 최저임금을 80달러에서 95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까지 160달러로 인상할 계획임.
- 미얀마의 임금(최저임금 개념 없음)이 2013년 53달러임을 고려하면 주요 산업인 봉제업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예상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f
경 상 수 지	-772	-712	-1,208	-974	-1,092
경상수지 / GDP	-6.9	-5.5	-8.6	-6.3	-6.5
상 품 수 지	-1,582	-1,491	-1,949	-1,492	-1,658
수 출	3,884	5,219	6,016	6,847	7,652
수 입	5,466	6,710	7,965	8,339	9,310
외 환 보 유 액	3,150	3,345	4,162	4,411	-
총 외 채 잔 액	3,833	4,336	4,776	5,221	5,652
총외채잔액 / GDP	34.1	33.7	34.0	33.6	33.4
D. S. R.	1.3	1.1	1.1	1.2	1.3

자료: IMF, EIU, OECD.

- 캄보디아는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국내 제품 경쟁력이 낮아 소비재 및 자본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미국, EU 시장에 대한 수출 감소와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됨. 2013년에는 의류와 신발의 수출이 26% 상승하는 등 상품수출이 호조를 보여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음.
- 2014년에는 여행객 증가에 따라 서비스수지 흑자폭 증가가 예상되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수요 증가로 소비재 수입도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6.5%로 확대될 전망이다.

□ **총외채규모 증가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입과 해외원조로 외환보유액 증가**

- 총외채잔액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에도 불구하고, 7%대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4년 33.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투자 증가와 국제 원조 유입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0년 32억 달러에서 2013년 4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13년 총선에서 야당이 약진함에 따라 정치 불안 우려 증가**

- 1985년 이후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CPP)이 장기간 집권해 왔으나, 2013년 7월 총선에서는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CNPR)의 약진이 두드러짐.
 - 캄보디아구국당(CNPR)은 2008년 총선에서 총 123개 하원의석 중 2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으나 2013년 총선에서는 청년 및 도시거주 유권자의 지지세를 바탕으로 55석을 차지함.
 - 캄보디아국민당(CPP)은 2008년 90석을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 68석을 차지하는데 그쳐 여당에 대한 개혁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이견 등으로 야당의 분열 가능성 존재

- 2012년 인권당(Human Right Party)와 삼랑시당(Sam Rainsy Party)의 합당으로 출범한 캄보디아구국당(CNPR)은 2013년 선거에서 약진하였으나, 두 당 출신세력 사이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분열 가능성이 존재함.

2. 사회동향

□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한 불만 등으로 근로자 시위 확대

- 의류 근로자 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저임금 및 열악한 작업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2013년 9월에도 경찰의 유혈 진압이 있었으며, 2014년 1월에는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함.
- 2013년 7월 부정 선거 의혹 제기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의류 근로자가 합세하여 시위를 하는 한편, 삼랑시(Sam Rainsy) 통합 야당 대표는 평화적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에 항의하여 훈센 총리 사퇴 및 조기선거 실시를 주장함.

3. 국제관계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태국과의 영토분쟁 완화 요원

- 2013년 11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해 캄보디아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태국 군병력 철수를 명령함.
 - 캄보디아와 태국은 국경 부근의 프레아 비헤아르(Preah Vihear) 사원 주변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100년 이상 갈등을 지속해 옴.
- 하지만 판결 이후 태국 민족주의 세력의 반발과 대규모 도심 장학 시위(셋다운 시위),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해 정국 혼란이 확산되어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태국 군병력 철수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국은 대규모 투자, 미국은 인권문제 해결 촉구를 통해 영향력 행사

- 중국은 대 캄보디아 투자 1위 국가로 인권 및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게 캄보디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인권문제, 부정부패 등을 투자 및 지원 정책에 연계시키는 양상임.
- 2013년 7월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미국은 대 캄보디아 원조 규모 감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혹 해소를 촉구하였음.

□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캄보디아는 1999년 아세안 가입 후 후발 아세안 회원국인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회원국 간의 개발 격차 해소라는 공동 입장을 견지하며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친 베트남 성향을 지닌 훈센 총리 집권기 동안 베트남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중장기 채무비중이 높은 채무구조 유지

- 1995년 파리클럽이 대 캄보디아 채무 2.5억 달러 중 67%를 탕감한 사실이 있으나,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함. 2012년 기준 총외채잔액 중 중장기 양허성 차관의 비율이 79.4%로 단기적인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3.7)	D1 (2012.11)
OECD	6등급 (2013.6)	6등급 (2012.3)
S&P	B (2011.10)	B+ (2007.4)
Moody's	B2 (2014.3)	B2 (2007.5)

* 동국은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OECD는 관광산업 호조, 외채관련 지표의 개선, 높은 경제성장률, 석유 생산 가능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08년 6월 캄보디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3년 기존의 B2 등급을 유지하였으며 S&P는 2011년 B 등급으로 평가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단기 및 중기 인수 가능
- 영국 ECGD: 제3국 확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한도 적용 없음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7년 10월 30일 (북한과는 1964년 2월 28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64), 투자보장협정(1997), 경제기술협력협정(1997), 항공운수협정(2001), 문화협력협정(2006),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2006)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캄보디아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캄보디아	2012	2013	2014(1~3)	주요품목
수 출	593	615	157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수 입	126	136	45	의류, 전선, 유선통신기기
합 계	719	751	20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교역규모는 751백만 달러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615백만 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6백만 달러를 기록함.
 - 주요 수출품은 편직물, 기타섬유제품,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의류, 전선, 유선통신기기 등임.

- 우리나라의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투자는 2013년 12월 말 기준 744건, 19억 6,668만 달러를 기록함.
 - 투자금액 기준으로 부동산 및 임대업(39.7%), 건설업(22.7%), 제조업(14.9%) 분야 투자가 많으며, 제조업별로는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30.5%), 음료(20.9%), 식료품(11.9%)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음.

VI. 종합 의견

- 캄보디아는 2013년 공공재정 지출 증가와 여행객 증가 등으로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선진국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캄보디아는 세수기반이 취약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또한, 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14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최근 의류 근로자와 야당의 반정부 시위로 유혈사태가 발생하여 장기집권하고 있는 훈센 총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높은 양허성 차관 비율, 안정적 경제성장세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대외 지급불능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유 재 준(☎02-3779-5705)
E-mail: jjyu@koreaexim.go.kr